

Supplementary Material 3. An instruction for evaluation (Korean).

역량평가 안내문

(This is an e-mail explaining what to do during the core competency evaluation to the training faculties .)

1. 책임지도전문의(To chief training faculty)

안녕하세요 책임지도전문의 교수님들.

전공의 수련교육체계화 사업 중에 핵심역량 중심 교육이 있는 것은 이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전공의들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해보는 것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전 보고서 이후로 기존 역량들을 수련교육위원회 교수님들과 수정을 했고, 세가지 신규 핵심역량을 만들었습니다. 평가 기준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평가에 쓰실 수 있는 예시들을 제공했습니다. 전공의 한사람당 세분의 지도전문의를 배정하셔서 11월 22일에서 12월 10일까지 3주간 평가를 진행해주시고 12월 17일까지 평가결과를 취합하셔서 Pass 혹은 Fail로 평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피드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피드백의 유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각 지도전문의들 및 책임지도전문의들께서는 항목당 평가 의견을 남겨 주셔서 전공의들이 그 의견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전공의 기록부 안 코멘트를 남기고 전공의가 그걸 볼 수 있도록 기능을 넣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비되기 전에는 엑셀로 된 평가표를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Fail로 평가받은 전공의들은 지도전문의 분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그 항목에 대해 본인의 개선방안을 작성해야 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책임지도전문의께서 확인 및 피드백을 해주시고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책임지도전문의 교수님들께서는

1. 전공의 1인당 3분의 평가지도전문의들을 배정해주시고 (책임지도전문의께서는 평가지도전문의에서 제외됩니다)
2. 각 평가지도전문의들이 3주간 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보내 드린 자료로 안내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평가기간이 끝난 후 지도전문의 분들의 평가를 취합하여 Pass, Fail판정을 내려주시고,

4. 전공의가 그 판정에 따라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안내해주고 방안을 가져오면 전공의와 면담,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안내 및 의견 취합을 위해 11월 22일 오후 3시에 책임지도전문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온라인 회의를 하려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교수님들, 혹은 대리참석 하실 수 있으신 교수님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지도전문의(To training faculty)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지도전문의 교수님들

수련교육위원회에서 핵심역량 평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저희 마취통증의학과는 병협 주관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사업에 응모하여 1차 완료 후 2차 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공의들의 수련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전 지도전문의 교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 책임 지도전문의 제도의 도입이 주된 요소입니다.

2차 사업의 일환으로 실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핵심역량 평가를 진행하고, 온라인 전공의 기록부에 입력하고, 개별 전공의에게 평가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역량 중심 교육은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임상에서의 술기, 환자와의 의사소통능력, 지식습득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핵심역량들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표 등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1차 사업에서 만들어진 핵심역량과 그 평가표에 대해 수련 교육위원회 안에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주된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통증, 중환자, 심폐소생술 관련 신규 역량의 추가

수련 교과과정의 전 분야를 포함시키기 위해 세가지 신규역량을 추가하였습니다.

2. 평가표의 정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의 다섯단계로 나뉘져 있던 평가표를 Not competent (위임불가), Borderline (감독하 위임), Competent (위임 가능), Excellent (완전위임)으로 항목 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게끔, 실제 평가

에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수정하였습니다. 모든 역량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역량 점수의 평균이 어느 이상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한 항목이라도 위임가능 이상이 되지 않으면 Pass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3. 기존 역량들의 정비

수련 교육위원회 교수님들과 기존 역량들의 항목들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일부 오류들을 수정하였습니다. 교육 및 평가에 참조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핵심역량은 총 7가지로 마취전 환자평가, 어려운 기도유지 관리, 초음파를 이용한 중심정맥관 삽입, 척추 및 경막외마취, 근근막 통증증후군의 치료, 전문심폐소생술, 기계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항목 당 세부평가항목들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평가지침(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역량으로 11월 22일부터 3주간 전 전공의에 대해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공의를 교육 및 평가하실 때 핵심역량표를 보시고 평가항목 및 평가지침(내용)에 맞춰서 전공의가 어느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를 피드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전공의 당 세분의 지도전문의께서 따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입력은 온라인 전공의 기록부 안에 하시게 될텐데 현재 업체와 구축 중에 있으므로 시스템이 완비되는 대로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함께 보내 드리는 엑셀로 된 평가표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셔서 보관하셨다가 온라인 시스템이 완비되면 거기에 입력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역량에 대한 평가시기는 마취통증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따릅니다. 현재 1년차는 마취전 환자평가, 전문심폐소생술, 2-3년차는 1년차 역량에 더해 어려운 기도유지 관리, 초음파를 이용한 중심정맥관 삽입, 척추 및 경막외마취, 4년차는 7가지 전체 역량을 평가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각 병원의 수련과정에 따라 상급년차의 역량이 아래 연차에서 이미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일찍 평가하셔도 무방합니다.

평가표와 함께 평가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ASA의 경우에도 각 항목의 정의들이 있지만 평가자 간에 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예시들을 제시하자 그 일치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전공의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시들이 있으면 평가하시는 게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수련교육위원회 교수님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는 각 등급의 예시일 뿐이고 실제 전공의의 사례는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전공의 평가하시는 것이 더 수월할 것이고 평가 교수님들 간 일치도를 더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책임지도전문의들께서는 3주의 평가기간이 끝나는 대로 (아마 그 이전에 온라인 시스템

이 완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분의 지도전문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과만 취합하셔도 좋고 지도전문의 교수님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각 역량에 대한 Pass, Fail 평가를 내려 주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 의견 혹은 회의 내용을 반드시 써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온라인 전공의기록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며 Fail인 전공의들은 본인이 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만 하며 6개월 후 다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전공의들은 책임지도전문의 교수님들이 평가자료들, 전공의의 개선방안 등을 가지고 대면으로 면담을 시행하고 그 내용을 온라인 전공의 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현재 역량평가는 고시 응시 규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전공의 교육을 통해 훌륭한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도가 정착된다면 추후 응시 요건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격무에 시달리실 텐데 새로운 일이 더 없어드린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역량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theory to practice

<https://doi.org/10.3109/0142159X.2010.501190>

: 의학교육에 있어 역량중심 교육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있음.

Competency-based Education in Anesthesiology: History and Challenges

<https://doi.org/10.1097/ALN.0000000000000039>

: 마취과에서의 역량중심 교육의 현황과 기존 교육에서의 전환에 대해 정리하고 있음.

Designing and Implementing a Competency-Based Training Program for Anesthesiology Residents at the University of Ottawa

<https://doi.org/10.1155/2015/713038>

: 캐나다 오타와 대학에서의 역량중심 교육의 실제적 전공의 프로그램 적용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Preparing anesthesiology faculty for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https://doi.org/10.1007/s12630-016-0739-2>

: 캐나다 오타와 대학에서 역량중심 교육을 시행할 때 지도전문의의 직역분담과 그 교육 및 준비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Anesthesia Residency Training in Airway Management: A Competency-Based Model Curriculum <https://doi.org/10.1213/XAA.0000000000001046>

: Airway management에 대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제시함.

Toward competency-based curriculum: Application of workplace-based assessment tools in the National Saudi Arabian Anesthesia Training Program [https://doi:10.4103/1658-354X.179097](https://doi.org/10.4103/1658-354X.179097)

: 사우디 아라비아 마취과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다룸.

3. 전공의

전공의 선생님들께

마취통증의학과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수련교육 체계화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병협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교육의 내실화, 체계화를 목표로 전공의 교육을 기존의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문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춰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 중 하나가 핵심역량중심 교육입니다.

학회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전문의로서 가져야할 역량 7가지를 정했고, 올해부터 각 병원의 지도전문의 교수님들이 그 역량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핵심역량 7가지는 마취전 환자평가, 전문심폐소생술, 어려운 기도유지관리, 초음파를 이용한 중심정맥관 삽입, 척추 및 경막외마취, 근근막 통증증후군의 치료, 전문심폐소생술, 기계환기입니다.

각 역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목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매년 10월에 이 역량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고, 평가 등급은 Not competent (위임불가), Borderline (감독하 위임), Competent (위임 가능), Excellent (완전위임)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임가능과 완전위임 둘 중 한 등급을 얻으면 PASS, 그렇지 않으면 FAIL로 FAIL인 전공의 선생님은 지도전문의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듣고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여 책임지도전문의 교수님과 상담하게 됩니다. 해당 전공의 선생님은 6개월 이후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현재 핵심역량중심 교육은 전문의 고시 요건과는 관계가 없으며 PASS FAIL여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의 충실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의 평가는 12월 10일까지 시행됩니다. 기간이 촉박합니다만 이 기간 한정은 평가 기간안에서의 능력만을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기간의 의미는 평소의 역량을 평가기간 안에 정리해서 입력한다는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행이라 어려운 일도, 예상치 못했던 일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 제도 자체는 계속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공의 선생님들의 많은 호응과 의견 부탁드립니다.